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좋은 하나님, 이제는 차가운 겨울비도 생명의 봄비가 되어 내리는 우수절기입니다. 우리들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은혜의 비를 내려 생명을 키울만한 옥토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욕심, 쓸데없는 자존심, 허영심, 미움과 시기의 냉기를 걷어 가시고 십자가 보혈의 온기를 베풀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에 끝없이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안타까움을 덜어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께 하듯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직도 계속 되는 주님의 힘찬 발걸음에 우리도 발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약4:8 인도자

♠ 교 독 문 19.시편84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장성호 선생 II.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함께

성경봉독 I. 미 6:6-8 인도자

II. 마 25:31-46 박미영 집사

찬 양 기쁘게 찬양하여라 찬양대

말 씬 I. 우리가 할 바 김재흥 목 사

II.녹색 은총, 녹색의 꿈 양재성 목 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십시오. 복음에 빛진 자로 이 세상의 못 생명들을 정성껏 돌보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꾸셨던 꿈을 저희 꿈삼아 살겠습니다. 죽음과 무관심의 문화 속에 생명과 돌봄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힘 주시고 이 결심 쉬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 호 회	말씀 : 김재흥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김준호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노순옥 권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안종일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 극 조병주 최숙화 백혜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준호 김인걸 유영남 송양진 박홍재

예수의 공생활

주 예수님, 오늘도 온종일 당신께 바쳐진 날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즐거우지요!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니 잠잘 때 외에는 당신께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께 기도드리며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께 눈길을 드려야 하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니 언젠가는 당신의 은총으로 잘할 수 있게 되리라 희망합니다. 제게 이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오늘은 당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당신께만 눈길을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당신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이 무슨 행운인가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느님, 여기 당신 발치에 제가 있습니다. 만물이 침묵 속에 잠든 밤입니다. 나자렛에서 어찌면 저만 홀로 이 시간에 당신 발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가 한 것이 무엇인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께 온 마음으로 흠송드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전 존재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시는 피정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당신은 제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대답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피정을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의 공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나자렛에서 한 것처럼 기도와 보속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만족하기보다는 자비를 베풀으므로 구원하려 애썼고,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외적으로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의 삶은 활동적인 것 같으면서도 기도와 (자주 한밤중이나 며칠씩을 고독 속에서 기도하려고 떠났다) 고행과 내적 잠심의 삶이었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쳐진 시간 외에는 고독의 삶이었다. 나의 생활은 참으로 고달팠다. 계속 돌아다녀야 했는가 하면 긴 설교를 해야 했고 사막에서 피정을 하는가 하면 거처할 곳도 없었으니 몹시 지칠 수밖에 없었다. 육체적으로는 불순한 계절과 거처할 곳 없는 밤이며, 불규칙한 식생활을 해야 하는 것들이 힘들었다.

정신적으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나의 말에 귀를 막는 사람들, 악

의에 찬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매일 손으로 어루만져 준 사람들의 영육의 비참함,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데 비해 영벌을 받을 사람들이 많은 것, 인간들의 고통, 정의로운 사람들의 고통과 나의 어머니의 고통, 수난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커지는 두려움, 구원에 대한 나의 말에 반대하는 박해와 적의, 모두를 위해 바친 나의 사랑, 특히 불충하고 빗나간 이 민족의 배은망덕, 이 모든 일이 다 애정과 연민에 찬 나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나 나자렛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모두에게서 박해를 받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절벽에서 떨어뜨리려 했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두가이들, 헤로데파들은 나를 죽일 기회만 찾으려 올가미를 놓아 계략에 빠뜨리려 했고, 뒤에서 공중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마귀 들린 사람이나 악마로 취급하기도 하고 선동자나 협잡꾼으로 여겨 사제들에게 고발하였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듯이 나를 업신여겼다. 나는 헤로데나 바리사이들의 위협을 피해 전전긍긍하며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여러 번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

이때는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나무라고 벌하며 그들 위선의 가면을 공중 앞에서 벗겨내고 강렬하고 거센 반대에 대항하여 하느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거친 세력과 맞서 진리를 외치는 용기를 발휘한 시기였다.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고발당하고 단죄 받았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나를 치려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군중들과 갈릴래아의 회당에서는 나를 두고 이를 갈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략을 꾸미는 바리사이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로 말을 했는지 모른다.

나는 진리 자체이므로 언제나 진리를 사랑했다. 수없이 겪은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크나큰 열정으로 진리를 전하고 증거한 것은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삶은 겸손한 삶이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자주 말리며, 내가 배운 선업과 기적들이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나를 내세우지 않았고,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고, 나에게 적의를 품은 사람들을 한마디 말로 꺾을 수 있었지만 이 도시 저 도시로 박해를 피하다님으로써 나를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았다.”

- 사하라의 불꽃, 샤를 드 푸코의 영적 수기 중에서

김미영 씨

누군가
“김미영 씨”하고
부르는 순간

나도
한 알의 씨앗이었다는 걸
깨달았네

채송화씨, 오이씨, 겨자씨처럼
지구라는 커다란 밭에
뿌려진

씨앗 한 알

-詩. 김미영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리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양재성 임미심 고사일 최영선 권채영 방 민 박정숙 이인웅 김금순
최미선 백혜성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김명순 문복순 김정섭 이정은 김남홍 고숙이 이갑재
배부례 조순덕 박범희 박미영 정원석 김현영

감사헌금:

방문성 박옥순 이은옥 김준호 배부례 임 영 정경례 이한영 권사 유족
무명1

생일감사헌금: 백묘현 양준하

구도헌금:

김용길 최영혜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조 순 덕	노 용 래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춘 희	정 복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곽 혜 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안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김 필 순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장 혜 숙
빌 린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정 은	김 수 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정 현 숙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수 진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김 성 자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새해에도 동호회 별로 열심히 모이시기 바라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원로모임** : 22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4. **담임목사** : 25일(토)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5. **교사수련회** : 다음 주 26일(주)-27일(월)에 교회학교 전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퇴촌에 있는 은명교회 영성원입니다.
6. **신앙강좌** : 다음 주 오후 집회는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강사는 한상의 장로님이시고 ‘우울증,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십니다. 마음을 더욱 건강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 **신앙실천** : 우수 때는 논밭에 해충을 없애기 위해 불을 놓고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고 버려야할 것들 한두 가지 버려 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 헌화 : 장재영 김재영 집사 (장하연 첫 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